



美 大學들 發明特許에 열의 特許 擔部署 설치하고 研究실적 商業化

전통적으로 상아탑 속에서 순수 科學研究에 몰두해온 美 대학들이 研究의 副産物인 發明特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韓國産業銀行 뉴욕事務所에 따르면, 최근들어 美 각 대학들이 敎授 임용시험에도 特許開發 실적을 증시하는가 하면 학교안에 特許專擔部署를 설치하고 연구실적을 商業化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企業買收(M&A)선 풍속에서 당장의 영업실적에 신경을 써야하는 大企業들로서도 研究開發部署를 줄이는 대신 大學과의 共同開發을 모색하고 있다.

美 대학들이 대학 재정수입의 원천으로 特許를 착안하게 된 것은 80년대 이후의 일로 80년의 Bayh-Dole Act가 그 轉機를 이루었는데, 同法에 의하면 정부자금을 받은 非營利 기관의 新發明에 대하여도 特許權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자금 支援에 의한 特許開發은 정부에 귀속하게 되어 企業의 特許활용에 지장을 주었다.

이에따라 일련의 法改正을 통하여 정부 연구기관이나 정

부납품업자들도 正當한 特許權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別表에서 보듯이 대학의 新發明品이 상당한 수입을 올리게되자 더 이상 연방정부의 支援을 기대할 수 없게된 대학들로서는 기왕의 研究開發을 이용한 特許취득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대학의 特許開發을 돕는 大學技術管理者協會(AUTM)의 회원수가 74년의 50개교에서 최근 6백개교 이상으로 늘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결과 대학의 로열티 수입이 86년의 2천 5백만달러에서 88년에는 5천만달러로 늘어났으며, 企業의 研究費 지원액도 6억달러로 8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MIT주변의 3백개사가 '매사추세츠 奇蹟'을 이룬 것처럼 지방정부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의 特許研究를 적극 支援하고 있다.

1988년중 美 대학의 로열티 수입 (단위: 백만달러)

순위	대 학	금액
1	스탠포드 대학	9.2
2	위스콘신 대학	8.0
3	매사추세츠공과대학	5.5
4	캘리포니아 대학	5.4
5	플로리다 대학	3.9
6	미시간 주립대학	3.3
7	콜럼비아 대학	2.5
8	휴스턴 대학	1.6
9	하버드 대학	1.2
10	코넬 대학	1.2

資料: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發明者證制度 폐지 검토

소련, 特許制度 改善 일환으로

蘇聯이 特許法을 개정하여 發明者證制度를 폐지하는 등 페레스트로이카의 일환으로 特許制度를 대폭 개정할 예정이다.

소련의 國家發明 發見委員會 I.S. 나야시코프 위원장은 이외에도 서방측 工業所有權과

같은 제도로 대폭 개선하기 위해 特許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발명은 부의 원천
국력의 근간!